

전북도 새 금고 확정...농협·전북은행 낙점

1금고 농협, 2금고 전북은행 선정
신용도·금리·기여도 등 종합평가
농협 일반회계·전북은행 기금 중심
지역사회 발전 협력사업도 추진

전북도는 전북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제안,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김성훈 농협은행전북본부장

이번호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를 포함해 의료급여기금과 소방 등 2개 특별회계, 재난관

리·농림수산물발전·재해구호·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을 맡는다.

제2금고인 전북은행은 동부권·학교용지부담금 등 3개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체육진흥·사회적경제·기후대응 등 12개 기금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전북도는 조만간 양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약정기간 동안 농협과 전북은행은 전북도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 재정자금 관리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금융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

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금고는 전북도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역경제와 도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만큼 안정적 자금운용을 실현하는 금융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이에 앞서 2026~2029년까지 도교육청 교육금고에도 선정되며 지역 내 광역자치단체 양대산맥의 금고지기로써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정부합동감사 7년 만 돌입 전북도정 전반 정밀 점검

행안부 등 11개 부처 요원 참여
내달까지 예산·정책 전방위 감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제10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개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창업지원 기관, 대학, 단체, 투자사 등이 추진하는 제10회 스타트업 10년의 도전, 기술로 꽃피우는 전북의 내일

<사진=전북자치도>

‘10주년’ 맞은 전북 창업대전, AI 혁신 10년 미래 연다

제10회 전북 스타트업 창업대전
산학연관 결집 전북AX위원회 출범
창업정책 설명회·상담부스 등 호응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창업지원 기관, 대학, 단체, 투자사 등이 추진하는 제10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이 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10년을 열어갈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투자사,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선포식 세레머니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지역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AI 전환의 중심, 전북 창업생태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AX 위원회 출범식과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AX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전략 및 AX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공유 시간을 가지며 전북 지역 AX 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

념하고, 산·학·연·관의 전문성을 결집,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북자치도 창업정책과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창업지원사업, 자금, 사업화, R&D, 투자 등 분야별 핵심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창업정책 설명회가 이어졌고, 상담관에서는 12개 기관의 창업 상담부스가 운영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연내 발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중단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 재검토
정청래 “투명한 구조, 독립출발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진키로 했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며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원행정처는)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국회때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법부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 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입장을 거듭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혁법안은)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을 강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야권의 반발 등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재개장...도 축산 유통축 재가동

도내 유일 도매시장 유통 정상화
5년 만 재개장...농가 출하 안정화
농가 부담 줄고 방역 신속 대응
전북산 한우 유통 인프라 재정비

도내 유일 축산물도매시장인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5년 만에 재개장을 앞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유일의 도매시장으로 운영되던 익산 도축장은 2020년 시설 폐쇄와 함께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전북 축산 농가들은 타 지역 도매시장까지 소를 출하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시설을 인수한 뒤 최신 위생 기준에 맞춰 전면 개보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3일 도축장을 새롭게 개장했다. 현재는 11월 중 예정된 축산물도매시장 경매 개시를 앞두고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재개장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 출하 기반이 마련되고, 도내 축산물 유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물류비 절감과 함께 유통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도매시장은 도축된 한우를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곳으로, 농가는 유리한 가격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농가 소득 증대와 유통 효율 제고에 기여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4곳, 중부권 3곳, 영남권 5곳, 호남권 2곳 등 총 14개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도매



도내 유일 축산물도매시장인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5년 만에 재개장을 앞섰다.

<사진=전북도>

시장 개장은 도내 한우 농가에게 합리적인 출하 여건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산 한우의 유통 활성화는 물론 전북 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3월 중앙축산, 전

북한우협회와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중도매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한우농가 참여 확대, 안정적 판로 확보, 중도매인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해 도내 축산물 유통 인프라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장정철 기자

도, 전북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총 3회 개최...3일 첫 세미나 열려
'사용후 배터리 특례' 법제화 논의
새만금 특화단지 중심 체계 정교화

전북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

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학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의회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캡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여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 첫 회차가 3일 개최됐다.

<사진=전북도>

반영한 특례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순환 체계 구축 논의를 정교화한다. 이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새만금을 국가 배터

리 순환경제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원이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국회서 “728조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R&D·AI 집중 '확장 재정' 기조 유지
국회 5일부터 예산 심사 돌입
내달 2일 본회의 의결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李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

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뿌리

씨앗이 부족하다고 발을 묶어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인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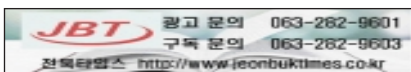
이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또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뒤에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물론 여야 협의에 따라 연기할 수는 있으나, 여당이 절대다수당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전북자치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 사무를 수행할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센터 운영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보육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위치한 전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보육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시설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단체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전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둔 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북도청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정책팀에서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



전주시, ‘민선8기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 1차 회의 개최

주민배심원 35명 선발
총 3회 회의 진행 예정

전주시는 민선8기 공약 평가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3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점검 방식 중 하나다. 주민배심원단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 및 공약 변경 적정 여부 심의, 개선방안 제안 등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다. 주민배심원 1차 회의는 ‘시민과의 약속’ 민선8기 공약 이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35명의 주민배심원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는 민선8기 공약 평가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3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주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5개 분임조 구성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2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진행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

해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임별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게 된다.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분임 및 전체 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 안전 승인 여부 및 개선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와 권고안을 오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jeonju.go.kr)에 게시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주민배심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28일까지 1주일간 외부 전문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음성 응답시스템(ARS) 및 2차 전화 면접 등을 거쳐 선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전주 미래를 실현하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달’ 운영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 앞장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11월 한 달 동안 ‘불조심 강조의달’을 운영한다.

11월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드는 계절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화재위험 경각심 제고·안전실천 확산’ 등에 나선다.

특히 소방서는 전열기 사용(캠핑 포함)이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하며 야영장과 주택가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휴대용 소화기 사용법, 화재경보기 점검, 캠핑 화기사용 안전수칙을 직접 알릴 계획이다.

특히 가족 단위 캠핑객을 대상으로 ‘텐트 옆엔 소화기 하나’라는 메시지를 집중 전파해,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형 안전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노후 아파트 거주자, 돌봄 공백 세대, 독거어르신·장애인·외국인 등 현장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는 직접 찾아가 특별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11월 8일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는 119청소년단과 함께 ‘2025



아동권기체행행사 시 소방안전부스를 운영하며, 안전 감수성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지난해 전주덕진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동안 △홍보 243회 △안전교육 4194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장 점검과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며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예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작은 불씨조차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겨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제4회 수소의 날’ ... 전주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추진 결과

전주시가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에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신형 고압 수소 튜브트레일러 도입, 전국 최초 광역단위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시설 수소 연료전지 실증 등 수소사회 전환 첫걸음을 내디



이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

원을 통해 수소전기차 1300여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개소를 구축해 수소활용 기반을 조성했다. 더불어 수소버스는 총 225대를 보급하며 수소버스 보유량 전국 지자체 중 2위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2개사, 예비수소전문기업 9개사를 발굴 및 지원했다. 아울러 수소기업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해 수소산업 전문인력 70여명을 양성하며, 수소저장용기 대형화·고압화 기술개발 및 안정성 검증이 가능한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해 수소기업의 제품 실증 인프라를 확보했다. /정소민 기자



2025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후보 모집

14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문학 등 10개 부문 총 10명 선정

2025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후보 모집 접수가 진행된다.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전주 예술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여되는 상이다. 아울러 예술상은 각 분야 문화예술 발전 업적에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수여된

다. 전주시는 ‘2025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 후보를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상 시상상은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 총 1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전주시 거주자 또는 전북특별자치

도내 거주자이다. 수상 후보자는 시상 부문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동일 부문 활동 문화예술인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아 추천서·공적서·이력서·증빙자료 등을 전주시 문화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시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공적 내용이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개최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야생조류 AI 발생지역 방역 상황 점검

“야생조류 AI 양계 사육시설로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노력”

겨울 철새가 머무는 3월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철저한 방역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3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군산시 만경강 하류 현장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전북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AI)가 지난달 29일 검출됐으며,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지난달 27일 전국 모든지역에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김 청장은 관계자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야생조류 AI가 양계 사육시설로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힘써 줄 것과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 후 소독 등 개인과 작업환경 위생관리 실천”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 영화의 거리 활성화 위한 리빙랩’ 시민참여단 모집

전주영화의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전주시 ‘전주 영화의 거리 활성화 위한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모집된다. ‘전주 영화의 거리 활성화 위한 리빙랩’ 시민 참여단 모집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의 전북 RISE 1차 공모사업 일환

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며 대학생, 일반시민, 기업 관계자 등 지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참여단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전주 영화의 거리 현안에 대해 분석·논의하고, 관광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 위한 시민 중심 참여형 프로젝트다.

시민참여단 모집은 총 35명으로, 5개 분과(인프라, 콘텐츠, 브랜드, 마케팅, 공동체) 각 7명 내외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산·학·연·관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분과별 정기 협의회를 운영한다. /김영태 기자

이를 통해 △영화의 거리 물리적 환경 개선 △콘텐츠 및 축제 프로그램 기획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홍보전략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네이버폼 온라인 링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새만금청-연구기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머리 맞대

3일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자리는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조성이 반

영되어 있다. 또 새만금은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여건, 항만·도로 등 물류 인프라 접근성, 주변 산업단지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등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은 “새만금은 미래 청정에너지 사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서,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차세대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지역 내 연구기관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핼러윈데이 범죄예방 활동 전개

전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가 밀집지역 등의 범죄·안전사고·질서 위반 행위 예방 합동순찰이 추진됐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핼러윈데이 10.24~11.2일까지 순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위한 활동을 지난 1일 전개했다.

핼러윈데이 2025.10.31일을 맞아 덕진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대원 등 20여명과 함께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지역민 안전을 우선시했다.

특히 이번 합동순찰은 민·경 합동순찰 통한 지역사회 협업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도모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화재예방 점검·현장행정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3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송천동로 마네시티를 방문해 관사장 주관 화재예방 점검과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인, 로마네시티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현장행정에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4명과 건물 관리인 2명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소방서는 관리실에서 시설 현황을 청취한 뒤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구역을 직접 점검했으며, 내부 통로·비상구 개방상태 및 피난경로 확보 여부, 자동화재경보설비와 소화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현장소통을 확대해 화재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한우협회 전북지부 ‘학교급식 한우 맛 체험’ 기증서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3일 ‘학교급식 한우 맛 체험’ 기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우 소비 촉진 및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도내 100개교 1만283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우 1735kg(약 59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학교급식을 통한 한우 나눔으로 미래 소비 주체인 청소년들이 한우의 고유한 맛과 영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APEC 무정전·무사고 실현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 유지 전기안전 최고수준 입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최근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정전·무사고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APEC 회의 기간(10월 27일 ~

11월 1일) 현장에 전기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총 83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전직원들은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전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철저한 대응체계를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민첩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화백컨벤션센터·국립경주박물관 등 주요 행사장 합동점검을 23차례 진행

하며 사고 대응한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주요 행사장·숙박 시설 등 70개소의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전기설비 안전성을 사전 확보했다. 그동안 한국안전공사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체결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힘써 왔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난달 31일부터~지난 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전직원이 함께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전기안전 서비스를 위해 전직원 공동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어촌公-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리빙랩 통한 현장 중심 실증·검증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장수군 지역활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농촌공간계획처), 지역개발지원단과 함께 ‘농어촌체류형 쉼터 리빙랩 거버넌스 회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수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수탁 협약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공공기관·지자체·학계·민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검증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 방식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중심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회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체류자 실제 이용 시나리오 기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체류형 쉼터 운영·관리 체계 마련 등 핵심 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 이후, 회의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성과와 오류를 공유·개선하고, 사업기간 뿐 아니라 준공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까지 리빙랩을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장수군은 체류형쉼터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 및 군 자체사업 등을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장수 치휴(休)마을조성사업’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체류-정주-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농촌 정착 모델을 실현하고, 농촌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장수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장수군 지역활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개발지원단과 함께 ‘농어촌체류형 쉼터 리빙랩 거버넌스 회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류형 복합단지 및 연계사업이 모범적인 농촌 정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을 통해 장수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밀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APEC 한중 공동 RE100 산단 논의

민생분야 실질협력 성과사업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개최된 APEC 한·중 정상회의 중 새만금 내 한중 공동 RE100 산단 조성 협력 제안이 민생분야 실질협력 성과사업으로 논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 RE100 협력사업은 김관영 도지사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 한·중 정상회담 민생분야 협력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도한 지역발전 전략이 국가 간 협력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중은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옌타이 등 기존 협력단지 대상 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새만금에도 투자 진출에 관심 있는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2015년 체결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MOU를 기반으로, 새만금 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E100 산업단지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개발 범위와 추진 방안은 향후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과 정부의 RE100 산

단단지 지정 정책과 연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풍력·태양광 등 새만금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중심의 RE100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기업투자와 기술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글로벌 RE100 산업 생태계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고, 민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모텔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산

업통상부 및 관련부처 협력이 한·중 정상 간 성과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새만금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정부부처 및 중국 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산업통상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지 지정 등 실행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실질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한우 근육 발달 핵심 유전자 ‘LY9’ 찾아내

세포 증식근육 형성 활성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의 성장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을 연구한 결과 한우의 근육 발달을 돕는 핵심 유전자 ‘LY9(Lympocyte Antigen 9)’을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유전자가 실제로 근육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LY9’는 면역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유전자로만 알려져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근육 발달에도 직접 관여하는 새로운 기능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한우의 성장 효율 향상뿐 아니라, 근육 손상이나 위축 같은 질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주목된다.

연구진은 생후 10개월령 한우를 성장 속도에 따라 구분해 유전자 발현을 비교한 결과, 성장 속도가 빠른 한우에서 ‘LY9’ 유전자가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생후 6개월령 한우에서 분리한 근육 세포에 ‘LY9’를 재조합한 단백질을 처리한 결과, 세포 증식과 근육 형성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LY9’ 유전자가 한우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구체적인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심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한우의 성장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

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류재규 과장은 “한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케이(K)-푸드로, 꾸준한 품질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다”며, “한우의 근육 발달 과정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한우의 성장 능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주예수병원개원 127주년 기념예식…모범직원 표창도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올해로 개원 127주년을 맞아 예수병원 본관 4층 예배실에서 기념예식을 개최했다.

1부 예배는 김선중 원목실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올 해로 60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 합창단의 찬양이 이어졌다.

2부 기념식은 신충식 병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했다.

신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127년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진 역사”라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세월 병원과 함께한 직원들에 대한 근속 및 모범직원 표창이 진행됐다.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역사는 건물이나 기록이 아닌,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진 역사이다”며 “특히 오늘 40년의 시간을 병원과 함께한 동료 세 분의 맑고 헌신은 지금의 예수병원을 있게 한 보이지 않는 기동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호응’

창업 아이템 발굴 최적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진행되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국내외 기업 전시관이 운영되며 전북식품명인대전을 통해 제1회 전북향토음식홍보전 등 다양한 연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 뮤지컬, 쿠키 클래스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월드옥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의 국내외 각 기관에서 참여한 단체 관람객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찾아온 바이어들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더불어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과 농촌지역 개발 관계자, 무역 거래를 위한 해외 기관 관계자들까지 연이어 방문하며 행사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대전에서 식품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우현 씨는 “전주발효식품엑스포는 식품 관련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매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행사를 찾은 임태현 씨는 “지방에 이런 짜임새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특히 발효식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내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내년 방문을 약속했다.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의 이은미 원장은 “이제 발효식품은 세계로 통하는 콘텐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발효식품을 통해 전북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쟁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진행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일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노란우산 쟁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그램이 11월에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회복 촉진을 위해 노란우산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노란우산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쿠폰으로, 전국 약 202만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쟁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

로모션은 소상공인 생생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노란우산 가입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을 든든하게 대비하는 한편, 지급받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다시 소규모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함으로써 생생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쟁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그램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소상공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역 상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노동조합, 전주시니어클럽에 3백만원 기부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은 전주시니어클럽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주시니어클럽 김요춘 관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고현상 경원동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심시일을 통해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연중 실질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어르신들의 활발

한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통해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연중 실질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2026 수능 D-10 안정적 시험 운영 ‘총력’

도내 1만7,937명 응시
4,100명 인력 투입
예비소집 12일 실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북교육청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되며,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전년보다 896명 늘어난 1만7,937명이다.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8명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

라 확진자도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나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중 시험장을 확정하고, 8월부터 전 시험장의 방송·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능 직전까지 종합 점검을 이어가며 미비점은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시험 주간에는 도교육청과 각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험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험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수능 관리본부는 시험 다음날인 14일까지 운영된다.

시험 관리에는 총 4,1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감독관 약 3,700명을 비롯해 파견감독관 66명, 경찰 277명, 소방안전관리관 67명이 참여해 시험장 보안, 문답지 호수, 수험생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장애·질병 수험생을 위해 개인시험실을 마련하고, 모든 시험장에 보건실·예비시험실을 운영한다. 수능 당일에는 경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여자고등학교가 운동장 잔디를 ‘수능 대박’ 글자에 맞춰 깎아 초대형 응원 문구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청과 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 통제 및 소음, 기상악화 등에 대비한다. 예비소집은 11월 12일 진행되며,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최성민 기자



유정기 권한대행 “전북교육 설계 지혜 모아달라”

직원조회서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11월 직원조회회를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전북교육이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지난주 교육부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모든 교직원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전북교육공동체 모두의 성과”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유 권한대행은 “이제 행정사

무감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라도 전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권한대행은 “연말을 맞아 각 사업별 성과 평가와 공유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도 정책 설계를 위한 밑거름”이라며 “성과는 더 단단히 다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비전·추진 현황 공유

내년 본격 개교
언론인들과 비전 공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내년 본격 개교를 앞둔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비전과 추진 현황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31일 현지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이창익 전북대언론인회장 등 언론인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 추진 경과보고와 현장 탐방을 함께하며 글로컬 인재양성과 남원 지역 재생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북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현황과 남원캠퍼스 시설 조성 계획을 청취한 뒤, 캠퍼스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남원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자리매김할 글로컬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대는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돼 ‘폐교 캠퍼스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후 남원시의 적극적 협조로 서남대 부지 매입했고, 지난 9월 교육부·기획재정부·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바이오헬스, 문화관



광, 지속가능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 글로컬캠퍼스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의 자산과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지역재생의 마

중물이 될 것”이라며 “교육·문화·산업이 융합된 혁신공간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호원대, 유학생 대상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심리상담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일 한국어 읽기와 쓰기 1학년 고급반 유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2분반으로 나누어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0년 후의 나를 만나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참여 유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유학생들은 자신이 10년 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상상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일기를 작성했다. 이어서 각 조별로 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혜경 심리상담센터장(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유학생들이 미술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최혜영 학생, 전북청소년자원봉사대회서 장관상 수상

환경정화·유기견 봉사 등
629시간 이상 봉사 수행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최혜영(간호학과 4년) 학생이 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RCY 활동을 중심으로 라오스 봉사와 환경정화, 유기견 봉사 등 국내외에서 629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

행한 최혜영 학생은 청소년 멘토링과 CPR 및 위생교육, 폐현수막 재활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혜영 학생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은 간호대학장도 “최혜영 학생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범이자 자량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인류에 실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해요!

우회전시 일시정지

운전중, 횡단중 스마트폰기 사용금지

방향지시등 점등! 정지선 지키기

이륜차 및 킥보드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규정속도 준수

군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갱신 최대 3천만원 보장

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마한박물관, 초등학생 가족 40명 대상 '토기체험' 운영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오감 체험행사 '토기체험' 참가자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백제도예원에서 열리며, ‘옛날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주제로 자신만의 개성과 맛을 담은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흙으로 빚은 토기를 야외 노천 가마에 넣고 직접 불을 지피 굽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고구마를 굽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 토기에 조밥을 짓는 등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체험하며, 불명을 즐기며 옛사람들의 삶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마한박물관 관계자는 “노천가마를 활용한 토기 굽기 체험은 선사시대 전통 방식으로, 오늘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이 함께 토기를 만들고 밥을 지으며 따뜻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체험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그 가족 40명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한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 내 접수 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2차 교육 운영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2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3일부터 7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을 통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로 접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이번 교육은 책을 직접 낭독하고 음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편집해 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평소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오디오북 이론 및 편집프로그램 기초', '음향스튜디오 녹음', '음성파일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군산시 김형욱 문화예술과장은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표현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왕궁, 생태복원 교과서 ‘등극’

‘왕궁 자연환경복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천억 원대 사업 선정

익산시 왕궁면 일대의 오래된 환경훼손 지역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치유 공간으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사업으로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437억 원(국비 1,691억 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33년까지 왕궁면 일대 182만㎡(축구장 255개 규모)의 훼손 지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왕궁면 일대는 과거 정부의 한센인 격리정책과 축산업 집중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이다. 1948년부터 이곳에는 한센인들이 강제로 이주해 살게 됐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축산업이 장려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 환경 파괴가 누적됐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2010년 정부는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축사를 하나하나 매입하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의 오래된 환경훼손 지역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치유 공간으로 거듭난다.

환경 회복의 기초를 다져왔다. 긴 시간 끝에 2023년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하면서 이제는 자연을 되살리는 ‘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1단계는 ‘자연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고속도로로 인해 끊긴 생태축을 생태통로로 연결해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파편화된 숲을 다시 잇는 생태숲 조성도 함께 진행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본래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리는 데 집중한다.

이어지는 2단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왕궁 일대를 따라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교육과 관광을 유도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전시하는 ‘왕궁

자연회복 기념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오염 행위를 멈춘 왕궁 지역에는 이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을 비롯해, 삿, 팽귄이, 독수리 등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고 있다. 이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자연이 돌아온 것이자, 본격적인 복원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다.

시는 환경부, 전북도, 정지권 등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하고, 이번 사업의 당위성을 철저하게 입증해 최종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수십 년 간의 아픔을 간직한 왕궁지역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익산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존 5%→1% 22곳 혜택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번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드론으로 재난 대응 강화한다

시-제9585부대 1대대 재난대응 드론예찰 협력

군산시와 제9585부대 1대대는 3일 군산시청에서 ‘드론 예찰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예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지역의 안전을 지키

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대규모 인구밀집도가 높은 행사·축제 시 △기타 재해·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해 영상정보 공유 및 현장 파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는 드론을 통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돼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

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군의 전문적 장비 운용 능력과 시의 재난 대응 경험이 결합되는 만큼 지역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접수

공직사회 도전·혁신 확산 11일까지 시민 추천 받아

정읍시가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을 말한다.

시는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

절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을 상반기에는 ‘현장 컨설팅형 기술 감사제 운영’, ‘정읍시립오양원 게스트 하우스 신축’ 등 6건의 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우수공무원(팀)을 추천하고 싶은 시민은 11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게시판의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추천서는 홈페이지는 물론 이메일(pluthaides@korea.kr),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추천된 사례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다.

최종 선발은 정읍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팀)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비롯해 성과상여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DNA’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스스로 관행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농뚜레일 투어’ 7일 개시

내장산 단풍·농촌즐기는 기차여행…16일까지 운영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특별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를 선보인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투어를 통해 내장산 단풍길, 쌍화차거리, 막걸리 양조장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붉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읍 9경 중 하나인 쌍화차거리를 찾아 전통 보양음료인 쌍화차를 체험하고, 한국술 도가에서 막걸리를 직접 거르고 시음하는 등 지역 농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논두렁·두레·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를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읍은 철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가을 단풍과 농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여행객들이 정읍의 자연과 문화, 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6,411톤 규모 공공비축미곡 수매 돌입

품종검정도 병행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비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도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군산시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은 “올해도 농민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 농가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익산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12월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사항 등을 종합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6,100여 복지세대로, 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한다.

또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급여 변경이 필요한 세대에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 누락된 급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신속히 연계해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전북 청소년활동 어워즈 최다 수상

자원봉사 등 다양한분야서 두각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전북 청소년활동 중심 도시로 떠올랐다.

익산시는 주말인 지난 1일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에서 익산 청소년과 자치단체들이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정우성 청소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김하늘 청소년과 임소현 지도자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받았다.

청소년 동아리 부문에서도 익산 청소년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익산청소년자치공간 ‘다꿈’의 보람티어 동아리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아롱별 동아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청담누리 동아

리는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을 받았다.

참여활동 부문에서는 익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백미(익산시청소년수련관)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명(익산시청소년수련관)과 UNITY(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또한 청소년자치공간 다꿈의 다꿈다방이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받으며 익산 청소년단체의 활약을 이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주체로 성장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익산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수소 인프라 구축 성과 인정받아

제4회수소의 날 기념식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군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쾌거다.

이날 기념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소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자체, 기업 등을 포상해 수소경제 확산을 촉진



하기 위한 자리다.

군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수소정소차·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수소충전소 2개소 운영,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전환 추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 수소 생태계 모델을 실현해 왔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산업기반 확

충을 병행하며 농업·에너지·산업이 연계된 부안형 수소경제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한다

10월~12월 12일까지 신청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

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 12일 까지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

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를 기 감경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 세대 함께한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성료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 방문 ‘완성형 축제’ 호평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진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모양성제는 ‘완성형 축제’라는 평가에 걸맞게, 전 세대가 참여하고 머무는 체험형·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전통예술 체험마을, 꽃정원, 그린마루까지 공간을 확장해 관람 동선을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방문객이 각 공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고창읍성의 전통을 계승하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QR탐험대 ‘사랑愛 빠진 모양’, 릴스 챌린지, 답성놀이 홍보관 등 MZ세대 맞춤 콘텐츠가 SNS 확산 효과



를 이끌어내며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며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였다. 세계유산 고창읍성을 무대로 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역사와 감성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52회 모양성제는 군민이 주체가 돼 함께 만든 진정한 지역공동체 축제였다”며 “고창읍성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모양성제가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산물벼 ‘신동진’ 등 총 매입물량 9123톤 배정

고창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고창군의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물량은 9123톤이다. 일반 건조벼 5551톤, 가루쌀 1320톤, 산물벼 2252톤이 배정됐다. 매입 품종은 산물벼는 ‘신동

진’, 건조벼(포대벼)는 ‘신동진’과 ‘수광’, 지역 여건과 농가 선호도를 반영해 품질 좋은 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물벼 매입은 10월 10일부터, 일반벼는 10월 31일, 가루쌀은 11월 5일부터 수확기 농가의 출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영국 80kg 기준)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매

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원이 지급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지역 농업의 중요한 수확행사인 만큼, 농가와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매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JTV 와글와글시장가요제 개최

6일 부안상설시장서

부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JTV 전주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오는 6일 오후 1시 부안상설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요제는 부안군과 부안상설시장 상인회 주최 및 후원,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집계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장 상인과 부안 군민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

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부안의 정과 활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개그맨 황기순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는 시장 상인과 부안 군민들이 숨겨온 노래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푸짐한 상품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가요제는 노래 경연 외에도 가수 현숙, 서지오, 진현, 피터팬 등 초대가수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 관객과 함께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11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황새’ 선정

고창군이 11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황새(학명 Ciconia boyciana)를 선정하고, 희귀 철새 보호와 갯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간다.

황새는 동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는 대형 조류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I 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키가 1m가 넘는 큰 체구에 붉은 다리, 검은 부리, 하얀 깃털이 특징이다.

갯벌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먹으며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황새의 존재 자체가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황새는 주로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일대의 습지·논·갯벌을 거쳐 이동한다.

이동 과정에서 고창갯벌은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착지 역할을 한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황새는 고창갯벌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철새 보호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ESG 행정 실천의 장의 장 ‘성향’

‘ESG 플레이 캠프’ 성료

부안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부안 ESG 플레이 캠프 행사를 개최하고 그 일환으로 부안형 ESG 행정 기반의 지역소멸 대응 및 상생을 위한 전략 논의를 위해 제3회 부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부터 생활인구 10만명(한평생 부안갯벌 보전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바다다온 블루카본 조성), 선도하는 ESG(국제표준인증 ISO 취득), 청년 인재 유입(부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 상생협력 부안(협업기관 유기적 네트워크

/부안=신상수 기자

조성), 부안의 푸른식탁(염생식물 활용 비건식품 개발), 기업 유치(수소도시 부안 및 해상풍력 연계 RE100 산단) 등 ESG 행정 추진했으며 이날 제3회 ESG 포럼을 통해 그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해 큰 박수를 받았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부안 ESG 플레이 캠프와 제3회 ESG 포럼은 부안이 지향하는 부안형 ESG 행정의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ESG 가치가 군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 중심 문화 확산 앞장

부모·자녀 행복한 성장 지원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선옥)가 김제시(시장 정성주) 관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가족 중심 문화의 확산과 긍정적 양육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시는 별도의 문화센터가 부재한 가운데, 센터는 다양한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기(0~2세)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

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선옥센터장은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보육지원기관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생활 속 가족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자녀가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의 즐거움을 확산하고, 김제시 가정의 양육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이도현 단장과 김제 지평선 고등학교 방문 강의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오늘 이도현 단장(전북현대모터스FC 단장)과 함께 김제 지평선고등학교를 방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현대모터스FC 이도현 단장을 초청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시립도서관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도현 단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6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내년도 세입예산 추계 논의

부안군은 지난 10월 30일 군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지방세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입예산 심의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로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무원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14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 올해 최종 징수전망액 및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액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된 끝에 최종 원안 가결됐다.

2026년 부안군 최종 군세 세입 예산액(추계)은 2025년 분예산 대비 약 20억원 감소한 350억원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액 중 지자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세입액이 22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첨부되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방세, 특히 군세는 우리 군 자주 재원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 전망액 산출을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도와 예산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23회 고창예술제’ 성료 향토문화예술 기틀 마련

‘고창, 예술로 물들다’란 주제로 제23회 고창예술제가 1일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예술제는 지역예술문화의 활성화와 예술인 창출, 향토예술인의 적극적인 창작의욕고취로 향토문화예술의 기틀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 군민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제다.

(사)한국예총고창지회가 주최하고 고창국악협회, 고창문인협회, 고창미술협회, 고창연예예술인협회 등 4개 지부가 주관한다.

기념식은 1일 오후 2시부터 별출하모니, 국악협회의 판소리공연, 문인협회 시극, 민요, 색소폰앙상블, 라인댄스, 고고장구, 고창여성시니어합창단 합창 등 군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수준 높은 공연과 아름다운 작품을 준비하신 많은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고창예술제를 통해 군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시, 문화로 ‘글로벌캠퍼스 도시’ 시동

원광대·전남대외국인유학생초청 한복체험·관람 등 남원 문화체험 전북대 남원캠퍼스 조성 ‘밀거름’

남원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 원광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의 대표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학과 남원시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운봉읍 소재 ‘희망씨앗농장’에서 산약 유제품 만들기과 교감 체험을 시작으로, 광한루원 내 화인당 한복을 입고 문화해설과 함께 광한루를 둘러보며 전통문화와 멋을 체험했다. 이어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감상과 남원시립 김병중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남원이 품은 예술적·문화적 감성을 느꼈다. 남원시는 올해 4월과 10월에도 전북



남원시는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호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대학교 및 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남원문화체험 교류 행사를 운영했으며, 5월 춘향제 기간에는 부산대 외국인 유학생과 몽골 60번 학교 청소년들을 초청해 축제를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 외 기관과의 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연속적 교류의 연장선으로 체류·정주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기반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남원시는 9월 24일 기획재정부·교육부·전북대학교와 구 서남대 부지의 활용을 위한 글로벌캠퍼스 부지 교환 상호 업무협약(MOU)을 마무리하며, 지역과 국가가 협력하는 미래 교육 기반 혁신적 협력 모델 구축이 본격화됐다.

시 관계자는 “남원이 세계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누리집 개설 ‘교통·시설 한눈에’

3일 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버스·공영주차장 등 정보 제공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3일, 공단의 대표 홈페이지(www.wjss.or.kr)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군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직관적인 이용환경을 구현해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정보 공간으

로 조성했다.

새롭게 마련된 홈페이지는 공영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고산자연휴양림, 공설공원묘지 등 완주군 내 주요 시설의 안내와 이용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또한 ‘고객의 소리’, ‘칭찬합니다’, ‘군민 제안 제도’ 등 소통형 게시판을 신설해 이용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이용자 의견을 상시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통합예약시스템 및 카카오톡·SMS

알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표 홈페이지는 완주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단의 모든 시설이 군민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바이오 뷰티기업 미국시장 공략 세미나

관계·규제 등 대응 전략 및 간단회 남원시, 미국시장 수출 본격 지원

남원시는 2026년 바이오 뷰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달 31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해외시장 공략 세미나 및 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행사는 LA 총영사관이 주관한 K-뷰티 미국시장 공략하기 온라인 세미나에 남원 9개 기업관계자가 참가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세미나는 남원 뷰티기업의 해외시장 공략범위를 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세계 최대 뷰티시장인

미국의 시장구조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세미나에서는 관세·규제 변화에 대응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통관 절차와 최신 관세정책, 화장품 분야의 FDA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이 다뤄졌다.

이어 연구원은 참석 기업들과 간단회를 열어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별 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뷰티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약 290만 달러 규모의 MOU·LOI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계속 진행되며 더 많은 수출 성과를 목표로 한다.

시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산업통상부의 K-뷰티 제품개발 및 수출지원사업을 통하여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베트남에 이어 미국시장까지 바이오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기반을 넓히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성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민 500명 한자리…평생학습 성과공유 축제

순창평생학습아울림 한마당 성황 1년 학습성장 응원·배움 가치 확산

순창군이 지난 1일 향토회관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순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평생학습 수강생, 강사, 학습 동아리 회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식전 장구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성과발표회 △전시·홍보관 운영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생학습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순창군이 지난 1일 향토회관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순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성과발표회에서는 민요, 플루트, 진도 북춤, 태평소, 하모니카, 하프, 방승댄스 등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1년간의 학습 성과를 직접 선보이며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교육발현특구 홍보 전시는 관람객에게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

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운영된 체험 프로그램에는 자개그림책 만들기, 리유저블컵 꾸미기, 캘리그래피, 다육화분 제작, 디지털 문해 기기 체험, VR쓰레기 등 20여 개 부스가 마련돼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주민주도 영화축제 ‘고씨네 별밤극장’

주민영화동아리 ‘고씨네’ 기획 7~8일 ‘무박 2일’간 7편 상영

별빛이 스크린 위에 내려앉은 밤, 완주미디어센터 옥상이 극장으로 변한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제3회 고씨네 별밤극장’이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열린다. 올해도 영화 감상 주민동아리 ‘고씨네’가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맡아, 이웃이 함께 만드는 색다른 영화 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별밤극장은 저녁 7시 ‘봄밤’을 시작으로 <첫여름>, <로타리의 한철>, <여름정원>, <블랙박스>, <갈비>, <월드 프리미어> 등 모두 7편의 장·단편 영화를 새벽

2시까지 상영한다.

개막작 <봄밤>은 권여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작이며, <첫여름>은 올해 칸영화제 라 시네프 부문 1등상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밤 12시까지의 옥상 상영, 이후에는 실내 상영관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중간에는 지역 뮤지션 공연과 컵라면 디너쇼도 마련된다.

완주미디어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 놀이방에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높인다.

모두 무료 관람이며 우천 시 실내 상영으로 전환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화합의 장’

다문화가정 고3학생에 장학금 장기자랑·아시아 음식 체험 등

순창군 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는 지난 1일 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순창군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다문화가정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에서는 다문화가정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들의 미래를 응원했고, 2부에서는 장기자랑을 통해 참가자들이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대행사로는 가족컵 만들기 체험과 아나바다(아래 쓰고 나눠 쓰는) 장터가 운영돼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아시아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다양한 문화의 맛과 즐거움을 더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역체계’ 가동

1일부터 방역초소 6곳 확대 전담 구성 시설·농가 집중 방역

남원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방역초소를 1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파주, 광주광역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돼 AI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됐고 전북 김제(원평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남원시는 가축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시설과 농가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방역초소는 기존 남원가축시장 인근 1개소 외에 사매면 춘향페스티벌 앞, 인월면 서무리 등 2개소의 거점 소독초소와 수지면 남창리, 주성면 낙동리, 사매면 화정리 등 종오리 농장 통제초소 3개소가 추가 된다. 초소에서는 축산차량의 소독 및 통제, 출입 인력 대인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읍면동 동절기 가금농장 전담관을 구성해 농가별 방역 수준을 간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만경서예협회, 제4회 작품전시회 개최

삼례문화예술촌서 4일 개막 9개 지역 서예동호회 작품 전시

완주군의 대표 서예 단체인 완주만경서예협회(회장 이화장)가 주최하는 ‘제4회 완주만경서예협회 작품전시회’가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완주 관내 9개 서예동호회 회원들의 수련과 열정이 담긴 총 119점의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4일 오전 10시, 삼례문화예술촌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장, 도·군의원, 문화예술인, 협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 휘호 퍼포먼스, 전시 관람 등이 이어진다.

완주만경서예협회는 2022년 창립 이후 삼례, 봉동, 용진, 상관, 구이, 고산, 비봉 등 9개 지역 서예동호회가 연합한 비영리 문화단체로, 서예문화의 계승과 지역예술인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화장 협회장은 “앞으로도 전통서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현대 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람은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지역아동센터연합 체육대회 300여명 참여 ‘성황’

완주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오미숙)는 지난달 31일 완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센터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센터 간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3명에게 모범어린이 군수 표창 수여됐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체육대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청·백팀으로 나눠 계주, 줄 달리기, 박 터뜨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해 협동심을 길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관내 아동의 돌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 총 1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돌봄을 포함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대한노인회 순창지회 ‘구곡순담 힐링 나들이’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회원 30명과 함께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힐링노하우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체험’은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순번제로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참가자들은 순창 월랜드에서 △윈 에테라피 체험 △건강운동 및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강천힐링스파에서 △강천힐링스파 족욕·도반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문화체험이 어르신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웃음으로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보건소, 독감 유·무료 예방접종 실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겨울철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 및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6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이며,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는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14~59세로 접종비는 10,000원이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무료접종 대상 증명서류(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남원시보건소장(한용재)은 “독감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감염 시 만성 기저질환의 악화, 폐렴, 심혈관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시민들이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 취약계층에 성금 100만원 기탁

군산시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회장 이영은)가 3일, 연말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는 임피, 서수, 성산, 나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꾸준한 나눔도 실천해 모범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영은 회장은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여성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임실 신기지구, 독거노인에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임실군이 지난 30일 신기지구(강진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먹거리를 지원하며 안부를 살피고, 주민 화합을 강화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신기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마을주민과 임실농협, 사업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 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신기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1,68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주택, 위험 시설 등을 정비하고 마을회관을 포함한 공동이용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취약했던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역량강화사업도 함께 전개했다.

양재희 위원장은 “김장 김치를 담가 마을 어르신들께 전달하게 돼 기쁘고, 적극 참여해 사랑을 나눠주시는 주민들과 후원해 주신 임실군과 임실농협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 오천초, 제6회 꼬마작가 출판기념 전시회 개최

아이들 상상성장담은책

지난달 31일 진안오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제6회 오천초 꼬마작가 출판기념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천초 학생들이 직접 쓴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선보이는 자리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성취를 기념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요즘처럼 책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시대에 스스로 글을 쓰고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것은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신 신연숙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 아이도 소중함 진안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은 군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지난달 31일 진안오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제6회 오천초 꼬마작가 출판기념 전시회가 열렸다

부안 계화농협,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효잔치 행사와함께지역사랑 실천

부안군은 지난 31일, 계화농협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계화면 종합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효잔치 행사와 함께 진행되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계화농협 김동섭 전무가 참석해 지역사회와 농협의 지속적인 상생 의지를 전했다. 기부금은 향후 어르신 복지와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계화농협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지역 특색을 살린 80여종의 담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꿈드림 청소년단, 흡연예방 영상공모전서 수상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꿈드림 청소년단이 3일, '2025년 남원시 청소년 흡연예방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흡연 예방 메시지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했다.

꿈드림 청소년단의 수상작은 ‘청소년 흡연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

닌, 미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이고 현실감 있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한 꿈드림 청소년단은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공음면, 홀로 어르신 생신 축하 케이크 전달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예숙, 민간위원장 김경례)가 공음면 상군마을 91세 홀로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떡케이크를 전달했다.

이날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의 생신 축하 인사와 함께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선운산 푸른 떡집에서 후원한 떡케이크와 준비한 선물을 대상 어르신께 전달하고 건강 및 생활 상태 등을 살폈다.

김경례 공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예숙 공음면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음면 모든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 장수읍지사협,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 전개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차주영, 민간위원장 김점옥)는 협의체 위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계층 3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찬 나눔을 위해 하루 전날 반찬 용기를 구입하고 세척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마쳤다.

당일에는 계란말이, 장조림, 버섯볶음, 갇은김치, 짜장 등 8종의 반찬과 간편식 국거리를 정성껏 조리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의미를 더했다.

밀반찬을 전달받은 김모(87) 어르신은 “혼자 살다 보니 반찬을 해먹기 어려워 끼니를 자주 거르곤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반찬도 주고 안부도 물어봐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점옥 민간위원장은 “정성을 담아 만든 반찬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 유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현대판 어우동팀’,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 순가락 난타 동호회 ‘현대판 어우동’ 팀 회원들이 3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정명임 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라며 “장차 무주군을 이끌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자라는 데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순가락 난타 동호회 현대판 어우동팀원 11명은 모두 무주읍 주민들로, 2024년부터는 ‘행복 밥차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공연을 펼치며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一事一言〉



개혁의제 못 세운 채 특검만 쳐다보는 정부(2)

김종대
전 국회의원

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다음 단계인 ‘객관적 문민통제’였다. 군의 소수 엘리트 파벌주의, 육사 중심주의, 방산비리와 정보라인의 폐쇄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법에 의해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 의제를 정립하지 못한 채, 특검만 쳐다보고 있다. 내란 수사나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모두 특검의 몫으로 돌렸고,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개혁은 어느 순간 ‘위임된 행정조사’로 축소되었고, 정부 스스로의 통치권적 개입은 사라졌다.

1993년 문민정부의 개혁이 자기혁신이었다면, 2025년의 개혁은 자기합리화에 그치고 있다. 내란과 외압의 흔적이 여전히 남은 군 인사 시스템 속에서, 일부 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관련된 법무관이 대령 진급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방산비리와 내란 후유증을 동일한 윤리적 공백으로 취급했음을 드러낸다. 특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위증한 해병대 장교들은 직무배제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외압 당사자들이 해병대 거의 모든

요직을 꿰차고 있다.

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다음 단계인 ‘객관적 문민통제’였다. 군의 소수 엘리트 파벌주의, 육사 중심주의, 방산비리와 정보라인의 폐쇄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법에 의해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한 개혁 의제를 정립하지 못한 채, 특검만 쳐다보고 있다. 내란 수사나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모두 특검의 몫으로 돌렸고,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개혁은 어느 순간 ‘위임된 행정조사’로 축소되었고, 정부 스스로의 통치권적 개입은 사라졌다.

1993년 문민정부의 개혁이 자기혁신이었다면, 2025년의 개혁은 자기합리화에 그치고 있다. 내란과 외압의 흔적이 여전히 남은 군 인사 시스템 속에서, 일부 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관련된 법무관이 대령 진급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방산비리와 내란 후유증을 동일한 윤리적 공백으로 취급했음을 드러낸다. 특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위증한 해병대 장교들은 직무

배제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외압 당사자들이 해병대 거의 모든 요직을 꿰차고 있다.

결국 개혁의 의지 부재는 인사 논란으로 직결되었다. 내란 가담자가 진급 명단에 오르고, 외압 관련자가 승진하며, 국방수뇌부는 과거와의 단절에 망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개혁을 외주화한 정치의 산물이다. 문민정부는 군 개혁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켰지만, 이재명 정부는 군 인사를 ‘책임회피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다. 개혁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책임 없는 구조와 무기력한 행정의 잔상뿐이다.

김영삼 정부가 그 어려운 개혁을 마다했다면, 김대중 정부로의 민주주의 이행은 한층 더 험난했을 것이다. 30여 년 전의 개혁은 군 스스로의 반성과 정치권의 결단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 개혁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의 현실은 그때와 다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군의 폐쇄적 구조가 지배한다.

오늘의 군 개혁은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통치의 기술로 치환됐다. 특검이 나서고, 국방부가 눈치를 보며, 대통령은 결정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문민통제의 본질-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은 흐릿해졌다.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확인 중”이라 답하던 장면은, 정부가 개혁의 방한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헌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1993년의 문민정부가 보여준 자기혁신의 완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그것만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 개혁의 열쇠를 정부 스스로 쥔 것인가, 아니면 외부 기구에 넘기고 ‘정치적 관리’로 만족할 것인가. 지금의 권력은 바로 그 선택의 문턱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년 전 김영삼이 보여준 ‘전격적 결단력’이 아니라, 그 결단이 뿌리내렸던 ‘책임의 철학’이다. 문민정부가 만들었던 ‘신한국군’의 기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완성하는 법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계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K-FOOD 수출 전진기지, 전북이 열었다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B2B 수출상담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284건의 상담과 231만 달러의 계약 성과가 이를 입증했다. 더욱이 15개국 52개 해외 바이어와 도내 58개 식품기업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활발히 교류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국제 비즈니스의 새로운 활로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글로벌 발효식품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이번 상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협력의 시너지’에 있다.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최했으며 KOTRA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 나섰다.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도내 중소 식품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는 실질적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한 화상상담은 국경의 제약을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현장에서는 즉석 시식과 체험을 통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 중심형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은 예로부터 ‘발효의 땅’으로 불렸다. 전통 장류와 김치, 젓갈, 식초 등은 수백 년간 지역민의 생활과 식문화를 지탱해 온 자산이다. 여기에 최근 건강식품과 간편식, 기능성 음료 등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에 부응하는 신제품들이 결합하면서 전북의 발효식품 산업은 새로운 번국점을 맞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바로 그 변화를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은 계기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의

바이어들이 K-FOOD 열풍 속에서 ‘정원료·전통발효기술·건강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후 관리와 현지 마케팅, 인증 지원 등 촘촘한 후속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도가 코트라와 ‘긴급지사와 사업’과 연계해 후속 상담 및 현지 시장조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성과를 통해 전북은 ‘발효식품의 고장’을 넘어 ‘세계가 찾는 K-FOOD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발효 산업은 단순한 지역 특산품 수준이 아니라 농업·바이오·건강·관광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이다.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수출 확대는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따라서 도는 이번 상담회 성과를 기반

으로, 글로벌시장 요구에 맞춘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과 통합 수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북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이제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기업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의 뿌리 깊은 발효기술과 현대적 식품산업의 결합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K-FOOD’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잡을 때,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식품 수출의 허브로 우뚝 설 것이다. 이번 성과를 ‘지속 가능한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문화재열전



임계기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문서류
-지정일 - 2017년 3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1월 4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시 010-5242-369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가을 햇볕 / 안도현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뒹다
아가야
저렇듯 맵게 살아야 한다

호호 눈물 빠지며 밥 비벼 먹는
고추장도 되고
그럴 때 속을 달래는 찬물의 빛나는
사랑도 되고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임실 마암초등학교에 재직하며 시를 썼다. 1982년 ‘창작과비평

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

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완주 삼례토성, 만경강권 고대 거점성 입증

29일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토성 내부 부석기 유물 추가 발굴

완주군이 지난달 29일 삼례읍 삼례리 일원에서 '완주 삼례토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2025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이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수행 중인 삼례토성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성곽학회), 박장근 군산대학교 교수(前호남고고학회)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완주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삼례토성은 만경강의 북안, 강가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의 토성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내부와 해안을 있는 거점성(據點城)이었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삼례토성은 낮은 구릉 위에 축조됐지만, 만경강과 주변 평야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성이 마한 말기에서 백제 초(약 1,500년 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영래 선생은 지표조사를 통해 토축성을 내성으로 둔 이중성(二重城)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성의 남쪽 구역, 내성 남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중심토루(塼), 토석혼축 외벽, 기단부 보강석축이 확인됐다. 중심토루는 기저부의 자연암반 위에 사질토와 점토를 일정한 두께로 다져 쌓은 판축법(版築法)으로 축조됐으며, 확인된 높이는 최대 3.3m 내외였다.

토루 외측은 석재와 점토를 혼용한 석축으로 보강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석재와 점토를 덧붙여 만든 외벽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외벽의 기단부는 장방형으로 다듬은 대형 면석을 2~4단 정도 쌓고, 내부는 자연석·면석·점토 다짐으로 단단히 보강한 구조를 보였다.

또한, 토성 내부에서 후기구석기 말기 유물 약 450점(돌날몸돌, 솜베찌르개, 쏜돌날몸돌,

잔손질석기 등)이 수습돼 추가 발굴이 진행됐다.

이는 만경강 분류에서 처음 확인된 구석기 유적 사례로, 이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생활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로 평가된다.

이번 발굴 성과를 통해 삼례 지역은 단순한 읍성 기능을 넘어, 만경강 유역의 문화 전파 거점이자 백제 서북 진출과 후백제 왕도 형성에 연계된 정치·군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삼례토성 일대는 고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교통의 요지이자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역참이 설치됐으며, 인근에는 완산 8경 중 하나인 '비비낙안(飛飛落雁)'의 명승 비비정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삼례양수장과 구 만경강철교가 위치해 있어, 삼례토성은 군사·행정·경제·산업유산이 공존하는 통시적(通時的) 문화경관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을 통해 완주 일대가 단절되지 않은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복합문화유산임이 확인됐다"며, "고대역사문화권과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향후 역사문화권 차원의 보존·정비·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역 역사교육과 관광자원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토성은 완주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지역문화의 원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발굴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유적의 보존정비 및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명소화, 교육·관광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2026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삼례토성 정비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 주민 설명회 및 현장 공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유산 이해와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근 기자

